

구라보 “도쿠시마”공장 – 슬러지 기화장치 도입

구라보 면합섬사업부의 “도쿠시마” 염색가공공장은 일본의 섬유업체 가운데 최초로 약 2억엔을 들여 배수 중의 슬러지를 기화시키는 장치를 도입하였다.

일반적인 폐수처리 시스템에서는 폐수를 분해하는 데 균이 사용되며, 그 균의 배설물이나 사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슬러지가 발생되는데, 구라보 엔지니어링사업부가 개발한 “클라키아”는 이 슬러지를 분해하여 기화된 메탄 가스를 발생시킨다. “클라키아”는 폐수처리 시스템에 혐기성 물처리장치를 결합한 장치로서 슬러지의 발생량을 1/5~1/10로 줄일 수가 있다.

슬러지 분해장치는 맥주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, 일본의 섬유업체에서는 “도쿠시마”공장이 최초로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한다.